

국산 첨단전투기 KF-21 출고 의미

최명상 (예 준장, 공사16기, 전 공군대학총장, 국제정치학 박사)



지난 4월 9일 국산 첨단 초음속 전투기 KF-X 시제 1호기 'KF-21 보라매' 출고 행사가 열렸다. 드디어 국산 전투기를 갖게 된 것이다. 목숨 걸고 조국 영공을 지켜온 노병으로서 가슴 벅찬 감회와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KF-21 출고는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 긍지를 높이는 숙원적 경사다. 비행기는 전쟁에 이용되면서 최첨단 과학 기술을 가진 선진 강국들의 독점몰이 됐다. 이러한 세계적 경쟁 속에 한국이 2026년 세계 여덟 번째 첨단 전투기 생산 국가가 되는 것이다. 해외언론(CNN)도 "한국이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둘째,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획기적 계기가 돼야 한다. KF-21 사업은 노후한 F-5와 F-4 120대를 국산 전투기로 교체하기 위해 총 18조6000억 원을 투입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이다. 방사청은 3만 개 이상의 항공부품 생산에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700여 개가 참여해 본격 양산 단계에 이르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무기체계연구원도 KF-21 생산유발효과를 24조 원, 기술과급효과를 49조 원으로 예측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미 의회가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F-35 스텔스기 생산을 중단하고 대체 전투기를 개발할 것을 국방부에 제시했다며 공군참모총장 찰스 브라운(Charles Brown)대장의 의견을 보도한 바 있다. 싸고 질 좋은 4.5세대 이상급 KF-21을 생산할 경우 인도네시아 60대 외에도 수출 전망이 밝다. 이럴 경우 30조 이상의 경제효과로 한국경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자주 국방력 증강과 공군력 대대약이다. 공군은 KF-21이 공대공 임무에서 F-16의 4.1배, 공대지 임무에서 1.3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군 조종사 출신으로 상해 임정요원이었던 최용덕(제2대 공군참모총장) 장군은 태극마크가 그려진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이제 우리 조종사들은 기본훈련기(KT-1)와 고등훈련기(KT-50), 경전투기(FA-50)를 거쳐 첨단 전투기까지 국산 항공기로 날 수 있게 돼 사기가 높다. 또한 항공기 부품 조달과 정비 수리를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F-16 신예기 창설 부대장을 맡아 수리 부품 조달의 어려움을 겪어봤다. 이제 국산 첨단 전투기 개발로 자주국방 능력이 증강되고 세계적 강군으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항공과학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외 항공과학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 아래 한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이 개발 중인 능동전자주사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탐색추적장비(IRST), 전자광학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방해장비(RFJ)를 포함한 통합전자전 장비(EW Suite) 기술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공중교전 우세, 침투세력 무력화와 원거리 타격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을 포함한 85개 중 65% 국산화가 완성돼야 한다. 그래야 해외공동개발과 성능개량사업에 참여하는 세계항공우주시장 선진 대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항공과학기술자 확보도 시급하다. 나는 F-X 후보기 해외평가단장으로 미국에 갔을 때 모국의 항공산업발전에 여생을 바치고 싶다는 애국 동포 과학자들을 만난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을 하루빨리 귀국시켜 활용해야 한다. KF-21이 명실공히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첨단 전투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사업 성공을 기원한다.//

KF-21보라매 출고식 소감

-가장 고귀한 손을 보았다-

윤은기 (예 중위, 학사 70기, 본회 정책자문위원)



역사적인 국산 초음속전투기 출고식에 다녀왔습니다 ~!!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항공우주 산업의 도약을 위한 쾌거입니다. KF(Korea Fighter)-21 보라매는 "21세기 하늘은 우리가 지키다"는 뜻을 담고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투기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세계 8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투기생산은 군·관·산·학·연의 유기적 협업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여야합의와 국민적 지지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날 출고식에는 11분의 전직 공군참모총장님들과 공군정

책발전자문위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논의가 시작된 후 지난 20년동안 모든 전현직총장님들이 한결같이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한국전쟁중 최초로 100회출격 기록을 세운 김두만총장님(94세)의 감격어린 회고담을 들으며 모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도 공군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공식 출고식이 끝나고 개발과정과 장비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며 다시한번 감탄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설계 소재 장비 제조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조종성평가시뮬레이터(HQS)실에서는 노장 김두만총장님이 직접 조종을 하셨는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조종간을 잡은 김두만총장님의 손

을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한번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전쟁상황에서 적진으로 출격하며 오직 조국을 지키기위해 조종간을 잡았던 바로 그 손입니다. 어느 예술가도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전투기는 달라졌지만 조국을 지키는 이 손과 조국수호 정신이 지금 후배조종사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정책발전자문위원을 대표하여 저에게도 조종 기회를 주어서 KF-21보라매의 조종간을 잡고 이륙·기동·착륙을 체험했습니다. 역시 속도가 빠르고 조종간이 예민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상하좌우로 크게 움직입니다. 비결은 조종간을 아주 부드럽게 잡는겁니다.

잊어야 산다

김완용 (예 준위, 준사관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한줄기 내리는 아침 햇살을 따라 가다보니 아파트 안의 소공원이었다. 장의 자에 누워 바라보는 하늘은 청자 빛 호수에 하얀 구름배가 점점이 떠가는 것 같았다.

구름사이로 말없음표를 찍으며 날아가는 철새들도 목적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정년퇴직 후 사회참여의 기회를 점점 잃어가는 요즈음 노병의 가슴은 더욱 슬퍼지는 것 같다.

도심의 아파트 숲 사이를 도는 바람처럼 뇌리 속에 박혔던 삶의 응이들이 도돌이표를 자꾸 찍으며 돌아오는 듯 한 아침이다.

이런 날이면, 빗겨가는 바람처럼 어느 스님의 법문 한대목이 문득 생각난다.

‘스님과 상좌종이 산사를 떠나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런데 강가에 예쁜 여인네가 하체를 드러내고 강을 건널 수 없어 난감해 하는 것을 보고 스님이 엮어서 건네주었다.

강을 다 건넌 후 묵묵히 따르던 상좌종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을 꺼냈다. 고결한 스님이 여인을 등에 업을 수 있느냐고 따지듯 물었다. 그 말에 스님은 상좌종을 향해 호통을 쳤다.’

“이놈아! 너는 아직도 여인네를 등에 업고 있느냐? 나는 타고 온 배를 버린 지 오래 되었다.”

이 법문은 늘 내게 화두로 남아 있다. 즉 스님의 법문에는 ‘강을 건넌다면 배를 버리라’는 뜻이다. 설령 상황이 긴박하여 여인을 업었으되 이미 잊은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의 법문이다.

그런데 세상일이 어찌 강을 건넌다면 배를 버려라 했듯이 배를 버리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 오늘도 살아갈 길이 살아온 길보다 짧은 나이에 곰곰이 생각하는 숙제가 되었다.

2005년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36년 2개월의 종지부를 찍고 내 몸을 감싸고 있던 군복을 벗는 날, 나는 영원한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했다.

이제 두 내외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벗어나 그간 못하고 살았던 일들을 하며 제약된 생활의 틀을 깨고 바깥세상에 나가면 균형속의 파란과 같은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을 하였다.

니다. 착륙은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서 현역조종사의 도움을 받으며 무사히 내렸습니다. 전에도 공군부대에서 전투기와 수송기등을 시뮬레이터를 통해 조종해보았지만 역사적인 출고식날 'KF-21보라매' 조종체험이라 평생 잊지못할겁니다.

이날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있는 경남 사천까지 이동은 서울공항에서 C-130을 이용했습니다. 목직한 군용기 엔진소리를 들으니 저절로 가슴이 뻐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대한민국 금수강산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조국 대한민국 영원무궁히 우리가 잘지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방안보없는 자유도 평화도 번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짐은 한 달도 채 가지 못했다.

이상하리만큼 생활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어 눈을 뜨는 시각은 언제나 아침 6시고, 점심시간은 12시 정각, 저녁은 18시였다.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전화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무슨 저녁을 그렇게 일찍 먹었느냐고 한다. 그들은 보통 7시 이후 9시가 되어야 저녁을 먹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저녁 6시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한다.

하루 식사량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한식으로 차려 먹어야 하니 아내는 자기도 이제 식사당면으로부터 제대 좀 하자고 항상 불평이다.

그것도 어려우면 점심이라도 간단하게 약식으로 때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하자고 한다.

더구나 전역 전에는 남편이 출근하면 그래도 자유롭게 시장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 살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있으니 어디를 마음대로 출타할 수 없는 아내의 제한된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일상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반평생 군대란 조직사회에 묶인 채로 살아왔던 내 모습이 이제 아내에게 전이된 것이다.

미안한 마음에 내가 없는 셈치고 자기 마음대로 놀러가고 취미생활도 찾아보라 하여도 아내는 어찌 남편을 혼자 집에 두고 마음 편하게 놀러 다니겠느냐고 도리어 역정을 낸다.

또한 그리움의 대상도 바뀌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그리움의 대상이 고향과 부모 형제 그리고 옛 동무들이었는데, 지금은 근무했던 부대, 바람처럼 스쳐간 전우들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다. 군대생활을 떠난 지 16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아직 군대가 그리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입버릇처럼 '잊어야 산다.'를 외쳐보지만 몸속 깊이 파고들어와 머물고 있는 군대생활은 영원히 잊어지지 않고 지울 수 없는 내 마지막 삶의 토대가 되어 버렸다.

스님의 법문대로라면 강을 건넌다면 배를 버려야 하는데, 나는 군대라는 배를 영원히 버릴 수 없을 것 같다. 이쯤에서 스님에게 되물려 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 몸을 건네주었던 배는 버렸으되, 그 배에 남겨진 추억만은 잊을 수 없다’고.....//

미나리(芹/Minari)

전대길 (병176기, (주)동양EMS 대표이사,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지난 50년 동안 성실하게 활동해 온 윤 여정(74) 배우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주최로 지난 4월25일 로스앤젤레스(LA)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에서 자랑스러운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은 것이다. 한국어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상(映畫賞)을 받은 것은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2년 연속 이룬 쾌거다.

이 영화는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 감독(한국명 정 이삭)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미국 영화사가 제작한 미국 영화다. 하지만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라서 외국어 영화로 분류됐다.

1980년대 미국 이민을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던 제이컵(스티븐 연)은 비옥한 땅을 일구겠다는 꿈을 꾸며 아내 모니카(한 예리)와 딸 앤(노엘 케이트 조), 아들 데이빗(엘런 킴)을 데리고 남부 아칸소로 이주한다.

아직 어리고 심장이 좋지 않은 데이빗과 앤을 돌보기 위해 모니카의 엄마 순자(윤여정)가 한국에서 건너온다. 푸른 숲이 우거진 시냇가에서 어린 순자 데이빗이 미국에 다니러온 외할머니와 함께 걷는다. 외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와 뿌린 미나리 씨가 발아하여 잘 자라서 시냇가는 온통 초록빛 미나리 밭이다. 봄바람이 알맞게 불어오고 따뜻한 햇살이 할머니와 외손자의 발걸음을 포근하게 비춘다.

외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한다.

“데이빗아, 미나리는 잡초처럼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들 가난한 사람든 미나리를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김치에도 넣어 먹고 찌개에도 넣어 먹고 아플 땐 약도 되는 미나리는 원더풀 이란다. 아이고~ 바람 분다. 미나리가 고맙습니다. 땡큐 베리머치, 절하네”란 장면이 눈길을 끈다.

그래서 '미나리(芹/Minari)'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미나리는 물을 뜻하는 옛말 '미'와 나물을 뜻하는 '나리'의 합성어이다. 이름 자체가 '물에서 나는 나물'이란 뜻이다.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인 미나리는 줄기 높이가 30cm 정도이며 털이 없으며 기는줄기가 뻗어서 번식한다. 잎은 어긋나고 긴 잎자루가 있으며 깃 모양으로 갈라진다. 작은 잎은 달걀모양이고 가장자리에 톱니 바퀴가 있다. 7~9월에 희고 작은 꽃이 복산형 화서로 피어난다. 잎과 줄기에 독특한 향기가 나며 줄기를 끊어 심거나 모를 옮겨 논에 심어 키운다.

조선 성종 때 명(明)나라 사신(使臣), 동월(董越..1431~1502)이 조선 땅을 둘러보고 '조선부(朝鮮賦)'란 견문록(見聞錄)을 썼다. 이 책 속에 "왕도인 개성 사람들 집의 작은 연못에 모두들 미나리를 심는다(王都及開城人家 小池皆植芹)"란 기록이 나온다. 집집마다 미나리를 연못에 키우는 모습

을 보며 동월은 신기함을 느꼈지 싶다.

그럼 왜 조선 사람들은 미나리를 이렇게 많이 키웠을까? 성종 때는 배추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십자화과에 속하는 초본식물인 '조선 무(Radish)'가 나오는 가을철엔 무김치를, 봄에는 미나리 김치를 담가 먹었다.

1432년(세종14년), 제사(祭祀)에 관한 기록이다. 부추김치가 앞에 있고, 젓갈 해해(醃齏)·무김치·사슴 고기젓이 그 다음이요, 미나리 김치가 앞에 있다.(第一行 菹菹在前 醃齏菁菹鹿醃次之 第二行 芹菹在前).

여기에서 보듯이 미나리 김치는 두 번째로 진열할 만큼 비중이 크며 그 당시 미나리 김치가 대중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흔한 미나리기에 '미나리를 바친다'는 '헌근(獻芹)'이란 말은 변변치 않은 조품(粗品)이란 뜻이다. '헌근(獻芹)'은 작은 정성(微誠)의 선물이지만 신실(信實)한 마음을 나타낸 겸양의 뜻이다.

미나리를 많이 키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바로 미나리의 상성성 때문이다. 조선시대 유생(儒生)을 교육하던 성균관을 '芹宮(근궁)'이라 했다. 바로 '미나리 밭'이다. '미나리를 캔다'는 '채근(采芹)'은 유생들의 공부 과정을 말한다.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여 키워낸다는 뜻이다.

이는 "詩經(魯頌)의 '즐거운 반수(泮水)에서 잠깐 미나리를 뜯는다(思樂泮水 薄采其芹)"에서 유래했다. '반수(泮水)'는 중국 주(周)나라 인재 양성 교육기관인 '반궁(泮宮)'옆을 흐르는 개천 이름이다. '인재를 널리 발굴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집에서 키우는 미나리는 나라의栋梁(棟梁)을 바라는 자식의 화신(化身)이었다.

그리고 봄철 입맛을 돋우는 채소인 미나리는 그 으뜸이다. 특히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춘곤증 예방에 좋다. 막 씻은 미나리 한 줄기를 씹으면 사각사각 경쾌하게 끊긴다. 미나리 특유의 상큼한 내음이 코끝을 진동한다.

미나리는 술안주로도 제격이다. 미나리는 '수근(水芹)' 또는 '수영(水英)'이라고 부른다. 달면서도 맵고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각종 비타민이나 몸에 좋은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물이다. 그래서 해독과 혈액을 맑게 해주는 데는 아주 좋은 식품이다.

미나리는 갈증을 해소해 준다. 특히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주독(酒毒)을 없애주고 황달이나 부인병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미나리는 비타민 A, B1, B2, C가 많다. 단백질이나 철분, 칼슘, 인(磷) 등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피를 맑게 해 준다.

서울 충무로 우리 회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부산복집'에서 복탕을 먹을 때 미나리를 듬뿍 넣어 준다.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인 인심 좋은 주인장은 "복탕에는 미나리를 많이 넣어야 한다. 미나리는 복어의 독성분을 해독시켜 줄 뿐 아니라 간(肝)이나 뇌(腦)를 고혈압 환자에게 속삭고 함께 최고의 야채이니 많이 드시라"며 권한다. 요즘엔 미나리 값이 올라서인지 미나리를 더 넣어 달라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미국에서 '바람 부는 언덕'으로 유명한 Chicago에서 '시카고 한국방송 K라디오'

의 <문화산책>과 <교양 Insight> 프로그램을 명 계웅 평론가(교수)와 함께 진행하는 김 영숙 시인(시카고 문인회장)의 <미나리 이야기>를 적는다. 그녀의 심경을 담은 아래 메시지가 우리 동심(童心)을 일깨워 준다.

“어릴 적에 시골 집 앞에 하수(下水)가 흘러드는 진흙탕 무논인 '미나리밭'이 있었어요. 미나리밭에서 자란 미나리를 낮으로 베어서 '미나리회'와 '미나리 비빔밥'을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어요. 미나리를 곱게 다듬어 쌀뜨물로 씻어서 뜨거운 물에 데친 후 돌돌 감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 향과 맛이 일품(一品)이에요. 지금도 두 눈을 감고서 미나리 향기를 한바가지 푹 떠서 코끝에 가져다 대면 태평양 건너 충청도 내 고향의 향수(鄉愁)가 물씬 묻어나요. 어머니께서는 미나리 전(煎)도 부쳐 주시고 미나리 비빔밥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입안에 침이 듬뿍 고여요”

“미나리는 독특한 향(香)으로 “나, 여기에 있어요~!”라고 외치기도 해요. 그런 미나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을 신나게 해 주었어요. 요즘처럼 Asian에 대한 증오범죄가 심각한 미국 땅에서 한국 영화계의 쾌거를 이룬 배우 윤 여정 씨의 삶이 참으로 신실(信實)한 삶인지를 잘 보여 주었어요. 나와 우리 가족은 대한민국인(大韓國人)임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끝으로 은근과 끈기의 상징인 인동초(忍冬草)처럼 미나리를 주제로 한 영화가 세계 영화계 정상에 우뚝 선 것을 기뻐한다. 오늘은 충무로 부산복집에서 미나리를 듬뿍 넣은 복탕으로 점심식사를 해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릴 적에 정강이에 달라붙어 내 피를 빨아먹던 통통한 거머리가 떠오른다.

북쪽에 넣은 미나리에 거머리가 붙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겠다. 미나리 이야기에 중언부언(重言復言)해 보았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제언

박기태 (대령,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처장)



지난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고 평가받는 미사일 지침

종료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체결됐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개발이 필요했고, 미국은 기술력을 제공하되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미국의 통제 범위 내에 두기를 원했기에 양국은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미사일 지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4차례 수정이 이뤄져 사거리 800km 이하,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결정됐다. 이번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으로써 우리는 군 정찰위성 및 초소형 위성체 발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전방위 전략적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위성들의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한반도 중심 경사궤도에서 운용돼야 하고, 위성군 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위성 대체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고체발사체를 개발해 우리의 영공 혹은 KADIZ 내에서 수시로 발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지상발사체, 해상발사체, 공중발사체를 활용해 신속하게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능력은 선진 우주강국의 전유물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상 우주발사체 운용에 적합하지 않다. 적도상에 위치하지 않고, 발사체 낙하 시 지상 및 해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넓은 공해를 확보할 수도 없다.

따라서 나는 공중발사체 개발만이 이런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한다.

공중발사체는 KADIZ 외곽 공해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사하기 때문에 궤도에 위성을 성공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고 적응성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공중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공중발사체 관련 최고 기술력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고체발사체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현재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은 고체발사체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최근 군사전략을 살펴보면 기술 협력을 받을 여지가 많다.

바이든 행정부 안보전략의 핵심은 동맹 네트워크 복원과 다자 안보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를 억제·제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동맹 네트워크 활용은 필수적이다.

작년 6월 공개된 미국의 “국방우주전략서”는 중·러의 도전을 거부하고 미국의 우주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①우주에서 포괄적인 군사적 우세를 확립하고 ②군사우주력을 국가, 합동, 연합작전으로 통합하며 ③전략환경을 조성하고 ④동맹, 파트너, 산업과 기타 행정부처 및 기관과 협력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과 우주작전, 계획, 연습 및 정보를 통합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우주전력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획득 능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 군도 이를 최대한 활용해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고 국방우주력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뉴 스페이스 시대의 도래로 다양한 발사체 및 위성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능력이다.

한반도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의 발사체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내세울 수 있는 분야는 공중발사체다.

지금까지 우리의 발사체 산업은 지상발사체 위주로 투자를 진행했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공중발사체 개발에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어렵지만 도전해서 성공할 때 우리의 국가 우주력은 도약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자

황태인 (예 중위, 학사 70기, ㈜ 토브넷회장)



이스라엘은 면적이 대략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크기로 21,643km²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큰 나라다. 국민 수는 많지 않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4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꼴찌인데 이스라엘 출산율은 3.1명으로 세계 1위다.

필자는 이스라엘을 네 번 방문했다. 1992년 ㈜쌍용정보통신 임원으로 비즈니스 출장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두 차례 방문하였고 두 번다 그룹 회장을 모시고 가는 출장이었다. 나머지 한번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협력단체 대표로 가게 되었고 마지막은 한국-이스라엘 상공회의소 임원 자격으로 가게 됐다. 네 번 다 비즈니스 출장으로 통신관련 벤처기업들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여 사업 제휴를 이끌어 내는 일이었다. 특히 출장 중에 키부츠(Kibbutz, 이스라엘 집단농장) 방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현재 '키부츠 벌룬터(Volunteer)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합숙하면서 낯선 환경 속에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거시적으로 세계를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유대인(Jew)의 총 인구는 약 2000만명으로 세계인구의 0.2%이다. 그 중에 미국에 약 700만명, 이스라엘에 약 900만명 살고 있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살고 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모두 900여명인데 그 중에 200여명 약 22%가 유대인이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이 유대인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65% 노벨상을, 의학 분야에서는 23%, 물리학 분야에서는 12%, 문학 분야에서는 8%를 유대인이 수상하였다.

미국 인구의 약 2%가 유대인이다. 미국 상위 400 가족 중에 24%, 최상위 40 가족 중에 40%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변호사가 약 70만명인데 20%인 14만명이 유대인이다. 국민투표로 당선된 미국 국회의원의 8%가 유대인이고 미국 유명 대학 하버드나 프린스턴 대학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 중에 25~35%가 유대인이며 그 대학 총장이나 주요 행정 책임자의 90%가 유대인이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스컴이나 영화회사는 대부분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세계금융의 40%, 미국은행과 영국은행을 소유하고 미국 달러와 영국 파운드화를 발행하고 있다.

2021년 1월 20일에 취임한 미국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친(親)유대인 성향이 강하다. 정부 요직과 백악관 참모에 유대인을 대거 기용했고 자녀 3명 모두 유대인과 결혼했다. 캐밀라 해리스 부통령 남편도 유대인이다. 미국에서는 유대인의 후원을 얻어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유대인 75%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고 이스라엘과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미국 권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유대인 헨리 키신저는 닉슨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냈다. 그는 1973~1975년에 두 직책을 겸함으로써 미국 외교와 안보 정책을 독점했다. 미소 '전략무기제한 협정', 중국의 실권자 등소평과의 관계 개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오일(Oil) 결제 통화로 달러(\$)만을 사용할 것을 이끌어낸 협상 등이 그의 작품이다. 1971년 키신저의 중국 극비방문에서 합의한 대로 1972년 2월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 공식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때 키신저를 옆에서 보좌하던 사람이 한국전쟁 고아 출신의 임종덕 대통령안보비서관이다. 임종덕은 전쟁 고아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한국전쟁 당시 미국 5공 군사령관 스티브 토머스 화이트 중장이 임종덕을 양아들로 삼아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졸업시켰다. 그는 25살의 나이로 미국 군입대를 해서 4년간 장교 훈련을 받았다. 특히 그는 낙하산 훈련과 특공대 훈련에서 1등으로 수료해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임관 후 첫 부임지가 주일 대사관 무관으로 배속되었다. 그 후에 임종덕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워 미국 은성 무공 훈장을 받고 소령으로 특진했으며 후에 1986년 육군대령으로 예편하였다. 그의 양아버지 화이트장군은 미국 공군대장으로 승진하여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였다. 임종덕비서관은 현재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한인사회에서 입지전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키신저 이후 미국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에는 유대인들 기용이 대체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주역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다. 화이자(Pfizer) CEO 앨버트 블라와 백신개발팀을 이끄는 미카엘 돌스텐이 유대인이다. 모더나(Moderna)의 최고 의료 책임자 탈 작스도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 출신의 유대인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인구당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세계 1위이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 2021년 6월 1일부로 모든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21세기 들어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 거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우수한 민족이 되었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이는 교육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3,000년을 이어온 민족이다. 유대인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유대인을 받아들일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모두 유대인으로 인정했다. 그만큼 엄마의 종교적, 교육적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섯 손주가 유대인인 것은 그들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유대인은 혈통이 아닌 종교로 구분하고 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를 믿으면 랍비(Rabbi, 유대교의 율법교사)의 검증을 거쳐 유대인이 될 수 있다. 탈무드(Talmud,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책)와 랍비에 의한 철저한 가르침으로 전인적 교육을 철저히 받는다. 탈무드에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려서부터 자립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출산율 세계 1위가 되었을까? 이스라엘에는 아이가 삶에 중요하다 하는 종교적 믿음이 있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수치스러워하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불임부부가 애를 갖기 위해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책임진다. 사실상 국가가 육아와 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탈무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유대인들은 토론식 교육 방식인 '하브루타(Havruta)' 방식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벤처(Venture) 정신을 갖게 한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면에서 우리나라도 유대인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국민이다. 한국인은 유대인보다 아이큐(IQ)가 1.2배나 높아 전 세계에서 유대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민족으로 꼽힌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G7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제조업을 뛰어넘어 유대인이 주도하는 금융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서 일류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키부츠 벌룬터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세상을 보는 큰 안목과 통찰력을 키우고 우리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 또한 시급하다. 우리는 유대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벤치마킹 하면서 이스라엘과 경제·과학·의학 기술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행복하려면 바보처럼 살자

안호원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칼럼니스트, 시인, 향군목사)



매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 6.25 참전용사들과 월남 참전고엽제 전우들을 초청, 오찬의 시간을 가졌지만 지난 해부터 코로나 여파로 초청행사를 하지 못했다.

근 2년에 이르도록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코로나19'에 이어 경제가 침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폭력까지 휘두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과 겨냥해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행복의 역설은 무척 잘 알려져 있다. 행복은 가치는 있지만, 그 행복을 겨냥하다보면 불행해진다. 이유는 끊임없이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이상적인 '행복상'에 비추어 보면 항상 부족한 것이 한 두 개가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이상적인 '행복상'은 일생의 어느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러운 제3자의 삶일 수도 있다.

행복을 겨냥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현재를 이룬 이상적인 행복상에 비추어 맥락화하고, 그래서 현재 자체를 충분히 음미하지 못하게 된다는데 있다. 충분히 음미(만족)하지 않은 현재의 연속이 행복할리는 만무하다.

불행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행복한 것이다. 행복은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저만큼에 있다. 행복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우리가 흔히 산꼭대기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상에 오른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만 늘어놓으며 힘들게 일을 하는 불행한 사람도 있다.

또 같은 음식을 먹지만 기분이 좋은 사람과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같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다. 다시 말해 무엇이든 즐기는 사람에겐 행복이 찾아오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겐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즐겨워하는 사람이다.

또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올라가면 내려와야 하듯이 폭염이 내리 쩌다가 또 비가 쏟아지고 다시 폭염이 계속된다보면 어느새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다가온다. 절정에 가면 모든 것은 내리막길을 가기 마련이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느끼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현재가 되는 순간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날아가 버리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된다.

행복이나 불행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멈춰있지 않고 흐른다. 나이가 들어서일까. 눈만 뺏다하면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일주일엔 금방 흘러지고, 한 달이나 일 년은 손살같이 지나가고 없다.

'지구' 들과 우리 만난 지가 언제였더라 하며 악수하다 보면, 못 본지 10년. 강산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해 한 때의 친구가 서먹서먹한 타인이 되어 있기도 하다. 주위에 있는 벗들이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가고 있다.

우리의 환경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도 마찬가지다. '근묵자흑(近墨者黑)'까만데 있으면 까맣게 된다.

또는 '근주자적(近朱者赤)'붉은 것에 있으면 너도 붉게 된다는 말 역시 마찬가지다. 2011년 미국에 있는 두 명의 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펴냈다. 본인들이 해왔던 연구들을 종합해서 '행복도 전염된다'는 책이 나왔는데 한 지역 공동체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패턴이 눈에 띄었다.

첫 번째 패턴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는 것이고, '행복(幸福)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패턴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주변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로 밝혀낸 것은 내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 15%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 10% 증가하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 6% 증가 한다고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네 단계쯤 가면 그때서야 영향력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다.

이런 진취적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에게 좋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전염시켜 주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면 결국은 나한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좋다는 것이다.

우리 전우들 역시 자신이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전염시키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본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바보처럼 사는 것이다.

'내가 바보가 되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는다. 저 보다 못한 놈이라고 뽐내면서 말이다. 내가 바보가 되면 마음씨 착한 친구가 모인다. 불쌍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내가 바보가 되면 약삭빠른 친구는 모두 다 떠난다.

도움 받을 가치가 없다고, 내가 바보가 되면 정말 바보는 다 떠나고 진정한 친구만 남게 된다. 내가 바보가 되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인다. 진정한 바보는 과욕을 부리지도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교만하지도 않는다.' 그냥 이대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다.

어리석은 바보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을 찾으려고 아까운 시간, 해매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밝고 맑은 사회가 될 수 있다. "범유하심자(凡有下心者)는 만복자귀의(萬福自歸依)라.(무릇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만 가지 복(福)이 스스로 돌아온다.)"//

조종사의 날과 우리의 다짐

조호성 (중령, 공군11전투비행단)



7월 3일은 한국 공군 최초의 전투기 무스탕(F-51D) 출격 개시일이자 조종사의 날이다.

71년 전 이날, 당시 이근석 대령을 비롯한 10명의 조종사들이 일본 이타즈케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F-51D 전투기를 인수한 지 하루 만에 적진으로 첫 출격을 감행했다.

당시 선배 조종사들은 짧은 휴식과 턱없이 부족한 전투기 인수 시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망설임 없이 전장으로 뛰어 들었다.

2008년 공군은 이러한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필승의 신념'을 계승하기 위해 조종사의 날을 제정했고, 예하 부대들은 다양한 추모 행사로 조종사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11전투비행단이 있는 대구기지는 F-51D 무스탕이 인수돼 처음 도착한 역사적인 장소다. 부대 정문에는 공군 창설의 주역이자 6·25전쟁 당시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고(故) 이근석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해마다 현충일과 조종사의 날이 되면 지휘관·참모·조종사를 비롯한 부대원들이 모여 이근석 장군 동상 앞에서 현화·묵념

을 하고 선배 조종사들의 넋을 기린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라는 뜻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71년이라는 공군의 역사적 경륜을 이어나가고 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조직의 원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선배 조종사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사를 초월했던 선배 조종사들의 '필승의 신념'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대가 바뀌고 안보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위국헌신과 '필승의 불사조 정신'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조종사들의 혼을 다한 소티(Sortie·항공기 출격 횟수) 또 한 소티가 조국 영공을 수호하는 근원임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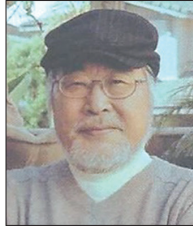
끝으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사명과 역할을 되새기고 필승의 정예 공군인이 되기 위한 다짐인 '조종사의 신조'를 소개하며 조종사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전투 조종사로서 신념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영공의 수호자'다. 우리는 최고를 지향하는 '신념의 조인'이다.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최정에 조종사'다.//

눈을 감으면

박평서 (예 대위, 학사53기, 김소월문학회 부회장)

이젠
가끔 눈을 감아보리라
그동안 언제나
온갖 빛들의
화살로부터 벗어나게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고 난 후엔
귀를 쫓긋하고
듣고자 했던 소리 들리지 않던
비발디의 사계, 각각의 현과 활 소리
비로소 듣게 될 터이니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다 보면
핏발이 서도록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렘브란트 그림의 그 빛과 그림자도
비로소 보일 터이니

태어나서 시작된
곧잘 줄 모르는 욕망과 집착으로
듣고 보지 못했던
그 고통과 슬픔의 덩어리 던지고
눈을 감으면
들리던 주파수 이상의 음파까지도
빛을 발하던 어둠의 그림자까지도
들리고 보일 터이니

그동안 언제나
온갖 빛들의
화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 가는 날개여!
이젠
가끔 눈을 감아 보리라



한탄강 강변에서

강상률 (예 준위, 전문경지회장)

산을 넘는 여름 햇살이
능선을 향해 포복 할 때
새들의 울음마저 끊긴 바람 사이로
기다림과 그리움 속 아픔을 물어 본다.



전방 철책에 묶인 긴장의 자유는
언제까지 흰 옷 입은 꽃으로 남아
핏빛으로 쓴 분단의 문자를 지우고
평화의 기슭 찾아가야 하는지를...

그늘진 날의 슬픔을 묻는
세월이 할퀴고 간 기억마다
가슴에 박힌 돌덩이를 품고
절규하는 시간 끝에 매달려서

이념의 무게를 가름 하지 못한
희미한 불빛 출렁이는 강물위로
한탄강 강변에 맺힌 눈물이
꽃빛 노을 속에 눈시울을 적신다.

